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부활 제6주일　　2019년5월26일(제1892호)

정혜엘리사벳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송돈희.요 셉 916-201-9859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15:1-2.22-29	제2독서	요한묵시록 21:10-14.22-23	복음	요한 14:23-29

◉말씀 <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안해하고, 항의도 해보고, 죄송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사과를 들었지만 이미 기분은 상했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나 계속 힐끔거리게 되고 혹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을까 감시하고, 막상 음식이 나와도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 맛이 그저 그런 것 같고, '겨우 이런 음식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버렸나! '하는 생각에 다시 화가 난 기억은 없으신가요? 기다린다는 건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아무렇지도 않은 가게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게 메뉴판에는 대충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느립니다. 음식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음식을 오래 기다리는 것이 싫은 사람이야 그 글을 읽고 바로 나가겠지만 대부분은 한없이 마음이 너그러워져 흔쾌히 기다리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원래 느리다는 데 어쩌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기다림과는 달리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메뉴판에 적힌 한 줄의 글 때문 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느리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함에서 여유로움으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들, 당신 자신에 대한 설명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들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셨고,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말씀이셨으며, 제자들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배반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원래 하던 일을 하러 떠난 이들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제자들이 바뀌기를 바라셨지만, 쉽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한 가지 희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다면 제자들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십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희망을 발견한 우리들이 보다 주님의 참된 제자됨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일 자	전 례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5월28일(화)	부활 제6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1,800.00 $ 991.00
5월29일(수)	부활 제6주간 수요일	오후8시 (성모의 밤)	미사예물 성소후원	$ 230.00 $ 50.00
5월30일(목)	부활 제6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30.00 $ 101.00
5월31일(금)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축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주일학교	$ 0.00 $ 0.00
6월 1일(토)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오전10시30분 (성모신심미사)	합 계	$ 3,202.00
6월 2일(일)	주님 승천 대축일	오전11시 (야외미사)	미사참례자	아동: 52명 성인:168명
교무금 봉헌자	허호영(5-12월)황성연(5-6월)한승운(2-3월)신영후.김채홍.박병수.김평옥.정규선.임상일.이정규(5월)윤재경.남필례(6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용서하시오. 모든 것이 정의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2)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은 의무적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받은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어주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오 복음 에서 주님께서 일곱 가지 표현을 사용한 ‘주님의 기도’ 를 가르쳐 주신 다음 형제애적 용서를 강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마태 6,14-15)
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한 짓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문을 닫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다른 교구에 있을 때 신부님 한 분이 자신의 절망감을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님은 임종을 눈앞에 둔 노파에게 병자성사를 베풀러 갔습니다.
불쌍한 노파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님은 노파에게 “할머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노파는 말을 할 수 없어 고백성사는 할 수 없었지만 신부님 질문에 “네”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어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이들을 용서하십니까?” 그런데 노파 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부님,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용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의 접합을 찾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고, 용서는 용서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 안에 용서의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정의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줄 아는 것은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 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하는 용서입니다. (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
원헤리나.헬레나/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박판기.세실리아의 영혼	국부자.마리아	생	소토주교님.본당신부님.부제님과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사목위원
생	사제관 건립 감사미사	건축위원			
생	사제관 축성 감사미사	여성회			
생	(생일) 토마스피터 킹스턴 홀쯔만의 영육간 건강	김영숙.요세피나	생	이희대.프란치스코 와 장동건.프란치스코의 영육간 건강	2구역

간장종지

◉행복◉

그 칠십 오세 노인은 스물 네 번째로 감옥에 들어갔다.
그는 감옥의 벽 앞에서 차디찬 눈물을 흘렸다.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걱정말아라 세상은 더 큰 감옥이니라…이제 나를 알았다면 거기서 너는 다시 태어나리라”

강은교 클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fax

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 지 순 례
신세계 여행사 SHINSEGAE TRAVEL
☎ 510-688-0155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한국어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 라 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 · 융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융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pm
SACRAMENTO . DUBLIN .LA K-TOWN

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공동체 소식(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O).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며
신앙과 순종의 삶을 본받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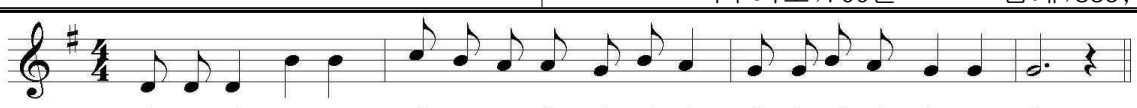
1.성모성월 묵주기도 안내(미사 30분전 성당)
기도주관:레지오 쁘레시디움(게시판 참조)
2.새 사제관 축복식
일시:26일(일)오전10시40분.새 사제관
집전:새크라멘토교구장 소토 주교님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기도해주시고
도움주신 신자들과 은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모임안내
사목회 :26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구역장회의:6월1일(토)오후8시.엘리사벳방
4.견진성사(청소년) 및 첫영성체
일시:26일(일)교중미사중.축하해주세요
주례:새크라멘토교구장 소토 주교님
견진대상(8명):허은우.양현지.정유미.이근호
이수진.이수빈.윤준식,Lyla Monahan
첫영성체(7명):안민수.이희재.이희승.최원영
정상민.장동건.한서진
5.성모의 밤 행사안내
일시:29일(수)오후8시.성당
준비물:묵주.초.구역/단체별봉헌(꽃.화분.쌀)
성모님께드리는글.봉헌금
6.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31일(금)오후7시30분.성당
체험발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7.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6월1일(토)오전10시30분.성당
미사후 안나회.요셉회가 있습니다.
(이날 특전미사는 없습니다)

8.본당 야외미사 안내
일시:6월2일(일)오전11시.폴섬
장소:Lew Howard Park(작년과 동일 장소)
행사내용:청백전게임(복장:구역팀에 맞는 색상)
청팀:3.5.6.8.10구역 백팀:1.2.7.9구역
음식은 구역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9.구역모임 및 구역미사(6구역)
일시;6월9일(일)오후6시.적극참여 바래요.
1구역(18명);2일(일)야외미사후
2구역(13명);2일(일)야외미사후
3구역(0명);추후공지
5구역(26명);7일(금)오후6시.성당
6구역(15명);9일(일)오후6시.이종만(구역미사)
7구역(9명);9일(일)교중미사후.마태오방
8구역(17명);2일(일)야외미사후
9구역(4명);9일(일)교중미사후.요한방
10구역(20명);7일(금)오후6시30분.장수영
10.꼬미시움 야외행사(서북미)
일시:6월8일(토).성당에서 오전7시 출발
장소:Alum Rock Park (1535 Penitcncia Creek Rd
San Jose. CA) 문의;윤재경.알베르또
11.감사합니다.
사제관비품(도네이션):소화데레사($300)

<주일/한글학교 소식>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문의:주일학교장)

◉식사봉사(이번주);각여성.남성단체 보조:김영숙
식사봉사(다음주); 보조:신부님.이상일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1,2구역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원캠페인;없음 잔액:$6,600
개인별 약정금액을 봉헌해 주세요.
◉사제관건립기금;없음
묵주기도;700단 합계;536,175단

화답송



전례봉사	부활 제6주일(5월26일)	주님승천대축일(6월2일)	성령강림대축일(6월9일)	삼위일체대축일(6월16일)
해 설	김은영.폴리나	최금주.요안나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제1독서	정상민.바오로	김귀태.안셀모	이대원.베드로	윤여훈.로마노
제2독서	이희승.크리스티나	김은영.프란체스카	이주연.크리스티나	남소영.세실리아
복 사	허호형.박성호	최진호.이상인	최준우.장현철	김규철.윤여훈
봉헌/기도/청소	1-2구역	1-2구역	1-2구역	1-2구역
헌금위원	안병훈.정의주.박수옥	이영숙.임혜숙.이경희	전비아.유정임.나송희	임상일.안혜숙,박병수